

## 개요

제37회 전국도서관대회(주최 한국도서관협회, 후원 문화관광부)가 9월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예향의 도시 광주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무등파크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도서관,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도서관인 1천 3백여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하여 활발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첫날 개회식에서는 우리 협회 이두영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의 격려사, 고재유 광주광역시장의 환영사,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축사가 있었으며, 계속하여 진행된 “독서문화상”(문화관광부 제정) 시상식에서는 난곡주민도서관 등 총 15명(개인 및 단체)이, 우리 협회가 주최한 “제2회 도서관 홈페이지 경연대회” 시상식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센터 등 7명(개인 및 단체)이 각각 수상하였다.

시상식에 이은 전체모임에서 신극범 광주대학교 총장은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의 도서관인의 역할에 대한 기초연설을 하였으며, 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이면서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본부 이사인 쑨 베이신(孫倍欣)과 일본 학술정보센터 연구 주간인 나이토 에이스케(内藤衛亮) 교수가 「독서진흥을 위한 중국국가도서관의 역할」 「디지털 환경에서의 읽기, 쓰기, 셈하기」라는 제목으로 각각 특별강연을 하였다.

9월 17일 대회 둘째날 부터는 우리 협회가 공모한 논문 5편에 대한 주제발표와 각 종 도서

관 관련 단체에서 진행한 세미나 2건, 워크숍 6건, 라운드테이블 1건이 여러 회의실에서 분산되어 진행되었으며, 특히 「세계 속의 한국학 자료관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재미 한인 사서 2명이 발표자로 나와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제37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 장면)

- ▶ 제5회 독서문화상 수상자 명단
- 대통령 표창 : 이성원(한국청소년도서관재단 대표), 난곡 주민도서관
  - 국무총리 표창 : 최병길(고산주부독서대학 부학장), 조점동(기러기문화원 원장), 새마을문고 여주시지부
  - 문화관광부장관표창 : 구본선(충남 부여도서관), 권의성(이리 모현초등학교), 이경희(창원시립도서관), 장혜란(나주공공도서관), 정원임(밝은세상 대표), 조영추(광주광역시립시립직도서관), 함진원(기린어린이문고 대표), 한봉희(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 회장), 흥경복(경기 평일초등학교), 새마을문고 안양시지부
- ▶ 제2회 도서관홈페이지 경연대회 입선작 명단
- 대 상 : 해당작 없음
  - 최우수상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센터, LG상남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 우수상 : 장익준(인제대학교도서관 사서)
  - 장려상 : 신안군립도서관
  - 특별상 : 도서관매일링리스트, 한국 문헌정보학 옐로우페이지



〈도서관문화 전시회장을 둘러보고 있는 참가자들〉

▶ 기초강연, 특별강연, 주제발표,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발표문 제목 및 발표자 명단

· 기초연설 :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 도서관인의 역할 (신극범/광주대학교 총장)

· 특별강연

△ 독서진흥을 위한 중국국가도서관의 역할(孫培欣/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 △ 디지털 환경에서의 읽기, 쓰기, 셈하기(內藤衛亮/일본 학술정보센터 연구 주간)

· 주제발표

△인터넷 자원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배금표/순천대학교도서관 사서) △인터넷환경에서 효율적인 해외 단행본의 수서전략(조윤희/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자료실 팀장) △디지털도서관의 정보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곽승진/LG상남도서관 사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만족에 관한 연구(고병률/한수폴도서관 사서) △공공도서관발전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김지현/인천교육과학연구원 문헌자료실 사서)

· 세미나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 변천에 따른 모형 교과과정(소시중/인천전문대문헌정보과 교수)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현황과 향후과제(한복희/충남대문헌정보학과 교수) △사서직 재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향후 과제(여위숙/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사무관) △학교도서관 운동의 현 단계와 전망(박금희/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전 사무국장/이운선 이화여대교육대학원 석사과정/김지연 이화여대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라운드테이블

△미국 내 한국학 사서직의 현황과 당면 과제(이정현/미국 캘리포니아대학 한국학도서관 큐레이터) △북미지역 한국도서관간의 장서개발에의 협력(이효경/미국 콜롬비아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사서)

(※ 상기 발표문이 수록된 「제37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1책 5,000원)은 우리 협회 사무국에서 구입할 수 있음. 전화 02-535-4868)

전국도서관대회 기간 중에는 한국,일본,미국의 독서홍보 포스터 및 표어 약 100점과 도서관 관련 연구·조사문헌 및 자료 약 150점이 전시된 〈독서홍보전〉과 도서관관련 설비 및 전자도서관 시스템 등 30개 전시업체가 참가한 〈도서관문화 전시회〉을 비롯하여 〈도서관 홈페이지 경연대회 입석작 시연〉 〈책, 그리고 茶와 香: 전통 글방문화의 재현〉 〈도서관인 명함 자랑하기〉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렸으며, 9월 15일(수) 저녁에는 광주시립박물관에서 〈책으로 여는 세상 KBS특별공연〉이 열려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9월 16일(목) 오전에는 광주역 광장 등 광주시 주요장소에서 문화관광부 주최로 〈책읽기 거리캠페인〉행사를 마련하여 책과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갖가지 홍보물과 프로그램 안내책자들을 배포하기도 하였다.



〈독서홍보전〉



〈책, 그리고 茶와 香: 전통 글방문화의 재현〉

## 인사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도서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가을빛이 제법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는 무등산의 품안에 자리잡고 있는 예향의 도시 광주시에 서 내외 귀빈 여러분과 동료 도서관인들을 모시고 서른 일곱 번째 전국도서관대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 도서관발전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朴智元 문화관광부 장관님, 오늘 전국대회 기조연설을 기꺼이 맡아 주신 신극범 광주대학교 총장님, 또한 이 대회의 특별강연을 위해 멀리서 오신 孫倍欣(Sun Beixin) 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님과 內藤衛亮(NAITO Eisuke) 일본 학술정보센터 교수님,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전국의 4만여 도서관인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랜 전통과 현대적 민주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여기 광주시에서 도서관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재유 시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부문에서 어떠한 예기치 못한 혁신과 변화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과거 우리 인류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의 틀 속에 살면서 오늘의 놀라운 정보화 사회의 양상을 어찌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라는 것과 이 사회가 21세기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의 貧과 富에 따른 필연적인 경제적 격차는 물론, 문화 향수의 격차는 우리 삶의 질과 가치의 격차를 가져 올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21세기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해질 것입니다. 도서관은 인류의 문화유산과 지식자원의 보고입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첨단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각계 각층의 모든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검색해낼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학술 및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은 국가 정보력 강화와 함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은 민주시민의 삶의 가치와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1세기 지식사회를 맞이하면서 지식기반시설의 핵심이 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유통시스템의 확립과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전환점에서 한국도서관협회는 1999년 전국도서관대회의 주제를 “도서관,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으로 정하고, 오늘 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회가 우리 도서관인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우리 협회는 21세기에 있어서의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실제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각종 제도적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고, 과거에 연중 행사로 끝나버렸던 “독서운동”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독서의 생활화”를 실현할 수 있는 도서관 중심의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고등학생 독서경시대회” 준비와 “전국민 책읽기 운동”과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우리 나라 농어촌 공공도서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활동계획을 올해의 중심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나라 도서관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협회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총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해 온 바, 지난 달 8월 방콕에서 열린 회의에서 2006년 IFLA 총회의 서울 개최가 확정 발표되는 개가를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본도서관협회와의 상호교류협정도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협회는 국내로는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국외로는 우리 나라 도서관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열성과 성원에 힘입어 더욱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처럼 협회가 국내·외적으로 뜻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밀어 주신 문화관광부 박문석 기획관리실장님, 오지철 문화정책국장님, 이경석 도서관박물관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나라 도서관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대회의 주제 발표자 여러분과 특히 미국에서 오신 이정현 선생님과 이효경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각종 세미나,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등의 행사를 진행해 주실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여러분 및 대회 전시회에 참여하신 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지사의 박운재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쓰시는 자원봉사자와 오늘의 대회를 위해 몇 개월 동안 애쓰시는 협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국도서관대회가 우리 도서관 가족의 화합과 단결 및 밝은 미래를 위한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9월 16일  
한국도서관협회장 이 두 영

## 격려사

한국도서관협회 이두영 회장님과 전국 각지에서 오신 도서관대표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고재유 시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예향이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제37회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전국 도서관인 여러분!

우리 나라는 그 동안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경제위기로 국가, 기업, 가정 모두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금융·기업·공공부문·노동시장 등 4대 부문에 걸쳐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온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과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애국심에 힘입어 이제 우리 나라는 어둡고 험난했던 위기의 터널을 빠른 속도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당시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불과 1년 6개월만에 600억 달러를 넘어섰고,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6 내지 7%에 이를 전망입니다. '97년 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경제위기 극복이 채 2년도 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일·중·러 등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햇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과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6일 후면 새 천년을 맞게 됩니다. 새 천년은 우리가 지난 천년동안 유지해 오던 모든 패러다임과 삶의 양식이 혁명적으로 변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나간 천년이 물질문명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새 천년은 문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가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각광받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천년을 향한 국가정책의 중심기조 역시 우리 국민의 문화와 지식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은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이야말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총아이자 가장 핵심적인 문화기반시설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 강대국인 미국을 만든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세기 전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가장 먼저 공공도서관을 지어 기증하기 시작한 이래, 그 전통이 이어져 오늘날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역시 도서관에 컴퓨터를 공급하는데 2억 달러를 기부하는 등 자선활동이 활발한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바탕으로 일찍이 지식기반을 구축하여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혁명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달리 우리 나라는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국민 책읽기 운동」을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공도서관 및 문고의 자료 구입 지원비를 전년도 37억원에서 6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고 내년에도 도서관 확충 및 독서진흥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사회의 구축을 위해 우선 공공도서관의 수를 현재의 381관에서 2011년 까지 750관으로 대폭 확충함으로써 도서관 1관당 인구수를 현재의 12만명에서 6만명 이내로 낮출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고 도서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온 국민들이 도서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서관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나라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이용자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역할은 건물과 자료 확충만으로 그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열어갈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의 선도자임을 깨달아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곳 광주에서 「제37회 전국도서관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광주광역시 관계자 여러분과 대회 진행에 애쓰신 한국도서관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9월 16일  
문화관광부장관 박 지 원

## 독서 진흥을 위한 중국국가도서관의 역할\*

쑤 베이신(孫倍欣)

(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

### 1. National Library of China : 소개

중국국가도서관의 전신은 1909년 9월 9일에 창립되어, 1912년 8월 27일에 공공업무를 시작한 清朝의 Capital Library이다. 1916년에 Capital Library는 중국 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출판물에 관한 납본 업무를 시작하여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1928년 7월 Capital Library는 'National Library of Beiping'으로 개칭되었고, 중국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 다시 'Beijing Library'로 개칭되었으며, 1998년 12월 12일 국가위원회는 도서관의 중국명을 Zhong Guo Guo Jia Shu Guan(National Library of China, 이하 NLC로 표기)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신축 도서관건물은 1987년 7월 1일 북경 서부의곽의 흑죽공원 옆에 준공되었으며, 전체 면적은 웬진가에 있는 분관의 4헥터를 포함하여 총 14헥터이고 건물의 공간도 17만 평방미터에 달한다.

NLC는 지식과 정보의 수집, 처리, 축적, 연구, 활용 및 배포의 기능을 담당하는 포괄적인 역할의 연구도서관인 동시에 국가납본 도서관이다. NLC는 또한 국립서지기록기관, 국가도서관 정보전산망센터, 문헌정보학 연구개발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LC는 중앙정부, 연

구교육 및 출판기관의 주요 이용자, 일반대중을 위한 봉사를 제공한다. NLC는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과 문화협정을 맺고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도서관 및 문화기관과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NLC는 700년 전 西 宋朝의 Royal Jixidian의 저작물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다양한 종류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1999년 6월 통계에 의하면, 164만권의 고서, Shang Dynasty의 35,000개 명작을 포함하는 약 2,20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출판물을 수집하는 정책으로 인해, NLC는 세계에서 최대의 중국출판물을 소장하는 도서관이었다. 장서의 50%에 해당되는 세계 115개국의 출판물을 소장하는 NLC는 중국 내에서 최대의 외국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NLC는 또한 특수장서로서 유명저자의 필사본, 혁명사에 관한 문서, 중국박사학위논문 등을 소장하고 있다.

NLC는 유엔출판물의 기탁도서관들 중 하나이며, 전세계 117개국의 국가의 996개 도서관 및 기관들과 출판물 교환협정을 맺고 있다. 정보매체의 발전으로 NLC 역시 많은 전자출판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60만 내지 70만 권의 장서가 증가하고 있다.

\*「제37회 전국도서관대회」 특별강연 "Reading Promotion: The Role on National Library of China" (번역: 유혜숙)

## II. 독서진흥을 위한 적극적 역할

도서관은 인류문명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사회발전과 진보에 중요한 요소이다.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 이르러, 도서관은 지식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유산을 전수하는 교각으로서, 진보의 기반으로서 또한 지혜의 근원으로서 인식된다. 또한 도서관의 수집, 처리, 축적 및 활용의 장소로서 도서관은 평생교육과 자율학습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NLC는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특히 1998년 12월 22일에 장쩌민 주석의 도서관을 방문하여 모든 중국인들에게 열심히 학습해 줄 것을 적극 권유한 이후 독서진흥에 관한 도서관의 역할에 비중을 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중국인들은 그들이 도시에 살던 지방에 살던 간에 열심히 독서하여 학습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다. 더 많이 독서할수록 그들의 삶의 질은 더욱 고양되고 국가는 더욱 신속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NLC는 다음과 같이 중국국민의 평생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1. 독서지도 : 책을 사랑하고 읽는 것을 배운다.
  - A. 이용자 훈련 : 독자들이 도서관과 정보에 대해 인지하고, “도서관 가기”에서 “도서관 사랑하기”로 바뀔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다.
  - B. 이용자안내시스템 : 이용자안내시스템으로 도서관 이용과 정보검색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C. 강의 및 세미나 : 독서경험들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강의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 독서모임 : 더욱 많이, 더욱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

A. 신간도서추천 : 신착 도서들을 이용자들에게 추천한다.

B. 신간도서전시 : 이용자와 출판사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최대한 빨리 신간도서를 독자에게 소개하고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C. “독서우승자” 포상 : “독서우승자” 포상 제도를 통해 도서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독서를 많이 하도록 독려한다.

3. 독서봉사 : 우수한 독서환경과 고품질 봉사를 제공한다.

A. 도서관에서의 독서봉사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주요봉사로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8실의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22실은 개가식 열람실로 1,700만권의 장서를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열람케 하고 있다. 도서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매일 7,000-8,000명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1만여 권의 도서가 대출되고 있다.

B. 대출봉사

i. 국내 도서관과 상호대차 서비스 : 상호대차의 중심기관으로서 중국내의 562개의 도서관 및 기관들과 상호대차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ii. 외국과의 상호대차 서비스 : 외국 63개국의 500여 도서관과 상호대차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iii. 대출봉사 : NLC는 이용자들에게 개



별적으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개의 대출실을 갖추고 있다. 1999년 6월까지 중국도서관에 대한 약 7만개의 대출증을 발행하였으며, 외국도서관에 대해 약 2만개의 대출증을 발행하였다.

### C. 참고봉사

NLC는 1928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참고봉사를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는 사회과학참고봉사, 과학기술참고봉사, 법률정보참고봉사, 초록 및 색인 열람실, 정보연구봉사, 신문클리핑센터, 문헌공급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제분야 연구, 문헌제공 및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LC는 또한 국립참고봉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단순히 출판물에 국한된 소극적인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이며 심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D. 복제 서비스

복사 및 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E. 시청각자료

NLC는 역사적 사건, 사회과학분야, 인문과학분야에 관한 비디오 카세트, 오디오 카세트, 비디오 디스크 등의 시청각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 F. 전시회 및 강연

NLC는 다양한 종류의 강연을 위한 1,200석 규모의 대강당과 또한 도서관에서 수집되는 신도서와 소장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을 구비하고 있다.

### G. 온라인 본문도서

중국에서 최대 규모의 전자정보원의 하나인 NLC는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

야의 CD-ROM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출판물을 소장하는 대규모의 전자열람실을 구비하고 있다. 1999년 2월 NLC는 중국 최초로 도서관의 모든 서브시스템을 연결하는 1,673개의 node를 가지는 Gigabit Ethernet Library-Wide Network을 가동하였다. 이 도서관 네트워크는 국가위원회, 북경대학교, Tshinghua 대학과 100MB 임대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ChinaNet, CERNET (China Education and Research Network), CSTNet(China Science and Technology Network), 북경케이블TV망 및 국립케이블TV망과도 고속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NLC는 단연 네트워크정보자원의 중심부가 되는 것이다. NLC는 5백만건의 레코드와 8백만 페이지의 전문 이미지 정보를 보유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인터넷정보서비스(Network Navigation, Full-Text Books Online, OPAC 등)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20만 건 이상의 접속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수의 증가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용자는 NLC의 OPAC에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상에서 full-text 도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국민의 독서운동을 크게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표1 과 2 참고)

## III. 이용자의 평가

· NLC는 나의 대학이다. 나는 이 대학을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일생동안 많은 혜택을

- 얻을 수 있다.
- NLC는 내가 종종 방문하는 신성한 장소이며, 나는 그 곳에서 기쁨을 얻고 정신적 양분을 얻는다.
- NLC는 수많은 끈기 있는 스승과 만족할 줄 모르는 학생이 있는 곳, NLC는 나의 가장 깊은 마음속의 존재하는 학문적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 나는 엔지니어이다. 독서는 내 취미중 하나이다. 지난 세월동안 책은 나의 여가시간을 채워주고 나의 일을 도와주었다. 독서를 통해, 나는 특허와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 NLC는 나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고 나의 전문경력에 새로운 차원을 열게 하였다.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나는 가장 중요한 학문 교류 활동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며, 의학정보에 관한 국가프로젝트를 응모할 수 있었고 포상도 받게 되었다. NLC는 정보와 지식의 위대한 힘을 사용함으로써 학문적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실례라고 나는 생각한다.
- 나는 지난 20년 이상 NLC를 이용해 왔으며, 큰 도움을 받아왔다. 나에게 NLC는 스승이며 지식의 보고인 것이다.

표 1 : NLC Home Page 접속 및 NLC방문 현황 통계(1998)

단위:10,000

기간	NLC홈페이지 접속횟수	NLC방문자수	비율
1월	8.4	7.1	1.2:1
2월	20.6	11.1	1.9:1
3월	21.0	14.5	1.4:1
4월	10.6	14.5	0.7:1
5월	24.3	15.8	1.5:1
6월	36.1	13.2	2.7:1
7월	68.8	12.7	5.4:1
8월	84.6	24.0	3.5:1
9월	146.2	12.8	11.5:1
10월	188.7	14.0	13.5:1
11월	241.8	15.3	15.8:1
12월	202.3	15.8	12.8:1
계	1053.4	170.8	6.2:1

표 2 : "Full-Text Books Online"의 통계 ('98.7 - '99.6)

단위:10,000

기간	Full-Text Books Online 접속횟수	NLC홈페이지 접속횟수	%
'98. 7	13.7	68.8	20.0
'98. 8	25.8	84.6	30.1
'98. 9	63.3	146.2	43.2
'98.10	93.5	188.7	49.5
'98.11	142.1	241.8	58.8
'98.12	103.4	202.3	51.1
'99. 1	219.1	323.9	67.6
'99. 2	180.7	277.6	65.1
'99. 3	402.8	538.8	74.8
'99. 4	486.7	651.8	74.7
'99. 5	473.8	609.4	77.8
'99. 6	530.4	658.9	80.5

## 디지털 환경에서의 읽기, 쓰기, 셈하기\*

나이토 에이스케(内藤衛亮)<sup>1)</sup>  
(일본학술정보센터 교수)

1. 도서관학의 5법칙
2. 기록지식 - 디지털 콘텐츠
3. 디지털 콘텐츠와 대학도서관
4. 정보능력 - 정의
5. 정보능력 - 교육적 측면
6. 생산자, 수집가, 전달자 및 통합자 - Nick Moore
7. 현대적 기술 및 전통적 능력

〈초록〉 이 강연에서는, 디지털 환경 아래에서의 도서관의 기능과 책임을 검토하고, 도서관 정보봉사의 세계적인 공통요인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읽기, 쓰기, 셈하기라고 하는 전통적인 능력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도 지적이해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 시대 도서관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일찍이 랑가나단(S. R. Ranganathan)이 정의한 전통적인 기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 언급하고자 한다.

### 1. 랑가나단의 “도서관학의 5법칙”

도서관학 분야의 인도학자인 랑가나단 (Shiyali Ramamrita Ranganathan)은 1931년 모든 관중에 공통되는, 현대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을 정의하여 1931년에<sup>2)</sup> 발표하였다.

- 도서관학의 5법칙 (1931) -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독자에게라도 모두, 그 사람의 책을.

어느 책이라도 모두, 그 책의 독자에게.

도서관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책에 맞는 독자를 찾아라.

독자의 시간을 덜어주라.

도서관은 자라는 유기체이다.

〈도서관학통론, 최성진, 1995〉

\*「제37회 전국도서관대회」 특별강연 “Reading, Writing and Abacus in the Age of Digital Contents” (번역: 유혜숙)

이 “도서관학의 5법칙”은 도서관·정보봉사의 사회적 사명을 요약하고 있다.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던 1931년 발표된 이 메시지의 기본 이념은 1990년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 한국의 유명한 고사성어인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명언(名言)이 생각한다.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옛 것으로서의 이 법칙은, 앞으로도 도서관·정보봉사의 기본적인 방향을 일러주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 2. 기록된 지식 - 디지털 콘텐츠

기록지식은 종이에 인쇄되는 것만이 아니고 손으로 쓴 것도 있다(필사본). 최근 들어 전자적 형태의 기록지식(디지털 콘텐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범위와 다양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형과 의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부분의 기록지식은 이용자가 활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조직되고, 저장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간략한 메모나 낙서와 같은 기록들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각각의 특성이나 용도에 따라 사용되거나 폐기되는 것들이다. 또한 원래의 목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마는 기록들도 있으며, 디스켓에 저장하는 것을 잊어버려 영원히 소실되는 전자파일들도 무수히 많다.

World Wide Web(WWW, W3)의 출현은 인터넷을 매우 대중적인 매체로 만들었으며 1993/94년에 이르러 인터넷의 폭발시대를 불러왔다. 최근 WWW에서 사용되는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은 미국출판협회(American Publishers Association)에 의해 개

발된 SGML(Standardised General Markup Language)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기술은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발전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기술들은 다른 정보기술(IT)과 더불어 도서관과 정보봉사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sup>3)</sup> 기록방법(예: SGML, HTML), 기록장치(컴퓨터, 스캐너, 카메라, 등), 전자기록매체들의 역사는 기록지식의 전체 역사와 비교할 때 여전히 유아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필사(손으로 쓰는)의 역사는 수 백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한국에서 발명된 목판활자의 역사도 역시 수 백년 전으로 올라간다. 전자문서의 역사는 컴퓨터가 상업, 산업, 연구, 교육 및 문명생활에 도입된 이래 불과 30년 남짓 되었다. 컴퓨터, 원격통신망, 디지털 콘텐츠의 첨단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읽기, 쓰기 및 셈하기에 한 영역을 더 추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 3. 디지털 콘텐츠와 대학도서관

나는 연구 및 교육기관, 연구자, 학생들 사이에 교환되는 학술정보를 다루는 기관인 NACISIS에 근무하기 때문에,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생성, 컴퓨터활용, 이용자지원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학회 및 대학 출판사 등에 의해 발간되는 학술잡지기사와는 별도로 대학 내에서 수많은 형태의 학술문서 및 기록지식들이 생성되고 배포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나는 6개의 대학도서관과 공동으로 대학들을 연결하는 학내 LAN을 통해 이러한 기록물들을 네트워크로 출판하는 프로젝

트를 시작하였다.<sup>4)</sup> 기술적 문제는 많이 있지만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가동되면 전자문서들은 전 세계에 즉시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는 파일 제출방법 및 절차, 저작권, 색인, 홈페이지 작성, 검색엔진의 선정, 지속적인 입력작업에 목표를 두었으며, 정보사회에서 대학도서관 직원에 의한 대학도서관의 역할확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NACISIS는 JST(구 JICST)와 공동으로 “Online Journal”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sup>5)</sup> Online Journal 시스템은 학회 및 전문단체의 출판물에 대해 전자 편집, 인쇄, 네트워크 출판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저널 시스템은 대학 도서관에게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sup>6)</sup>

‘전자도서관’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도서관 직원에 의한 지원이나 협조가 없는 곳에서 원격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내가 지난 5년간 추진해온 프로젝트는 캠퍼스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전자문서를 생산, 유지, 접속하도록 지원하는 도서관 직원에 의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학 출판사 역시 학술출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 도서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네트워크 출판이나 방송에 관한 도서관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음 시대의 새로운 학술출판기능을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4. 정보능력 - 정의

‘정보능력(information literacy)’이란 용어

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되는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 “정보능력”이라는 용어가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과 관련하여 임의적으로 혹은 손쉽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도서관과 정보봉사의 건전한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제는 그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다각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보능력이 기록지식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지식의 사용을 지원하는 도서관 직원에 의해 마구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학도서관 직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출판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보능력이라는 용어와 경쟁하고, 대결하며 조화를 이루어 왔다.

“정보능력”이라는 용어는 컴퓨터와 관련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지식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이 가지는 문맥에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도서관학을 위한 “정보능력”은 정보이용-생성, 출판, 수집, 축적 및 사용에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전통적인 요소이다.

일본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능력”의 정의는 정보이용의 전반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sup>7)8)</sup>

- 1) 정보생성과 통신 및 정보의 평가, 선택, 조직 및 처리능력
- 2) 정보사회의 특성, 사회와 인류에 끼치는 정보의 영향에 대한 이해
- 3) 정보의 중요성 및 책임에 관한 인식

#### 4) 정보학 기초에 관한 이해, 정보와 정보기기(특히 컴퓨터)의 기본적 운용기술 습득

일본에서의 “정보능력”에 관한 개념은 “정보와 정보매체를 주관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고 개별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비판적 사고력”, “정보와 정보매체의 비판적 판단력”을 육성하기 위해 “읽기, 쓰기 및 셈하기”의 기본적인 능력과 동등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5. 정보능력 - 교육적 측면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 관련하여 “정보능력”에 대한 정의가 도입되었다. 정보능력 교육에 관련하여 개정된 교과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강조되어 있다.

- 1) 정보능력의 함양: “읽기, 쓰기 및 셈하기”와 동등하게 “정보능력”을 미래의 정보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자질의 하나로서 육성시킨다.(정보능력은 정보와 정보매체를 주관적으로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고 개별적인 능력이다.)
- 2) 정보매체의 사용에 의한 학교교육의 활성화: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를 활용함으로써 학습매체를 활성화시킨다.
- 3) 정보도덕성(윤리성)의 확립: 정보와 정보매체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 가치, 영향, 책임에 관한 기본적 인식(정보도덕성 / 윤리성)을 확립시킨다.
- 4) 정보사회의 양지와 음지에 대한 대응: 정보와 정보매체의 장점(양지)을 최대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의 과다의존, 가상세계의 팽창, 정보범죄 등과 같은 정보사회의 음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정보의 형태에 상관없이 정보능력의 육성에 관한 폭넓은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측면에서 도서관과 정보봉사와의 관련이 있는 공통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 6. 생산자, 수집가, 전달자 및 통합자 - Nick Moore

영국의 정보 및 정보정책 전문가인 Nick Moore는 1999년 1월 정보전문가의 육성에 관한 NACSIS 공개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sup>9)</sup> “정보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기술 및 능력은 우리가 이전에 습득했던 것과는 다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생산자, 수집가, 전달자 및 통합자라는 상호 보완적인 4가지 그룹의 정보전문가들의 출현을 예견했다.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 정보전문가에 관한 Moore 교수의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자 : 생산자는 정보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개발 가능한 기술을 어느 수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정보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것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치 하나의 자동차에서 다른 자동차로 바꾸어 운전할 수 있듯이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손쉽게 바꾸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수집가 : 인터넷과 같은 서비스는 우리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극적으로 확장시켰다. 그러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사람이나 장소가 필요하다. 이것은 사서, 기록보존가 및 기록관리자의 전통적인 역할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정보의 미래사용을 예측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수집가는 이용자들의 현재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도록 노력하지만 미래에 개발될 수 있는 요구사항들을 예측하고 그러한 미래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이다. 정보수집 작업은 정적이면 안된다. 지속적인 갱신 없이 정보가 오래되고 새로운 자료가 결여된다면 수집가의 질적 지위는 격하될 것이다.

전달자 : 정보는 사람이 획득할 때 최고의 가치가 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정보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보요구의 특성 및 정보 탐색행동에 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앞으로 전자정보를 더욱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이용이 보다 복잡해지면서, 특정한 상황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적절히 편집함으로써 우리에게 특정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달자들은 고도의 인간관계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접촉하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정보를 가공하고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합자 : 통합자는 관리자로서 세계적인 감각을 지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관리팀으로서 근무하며 검열자 혹은 연구자로서 활동

한다. 통합자는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매우 정통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2차 자료들을 탐색함으로써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 그들은 정보자체를 수집하고 처리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여러 다른 출처로부터 정보를 합성하고 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위해 제공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합성과 통합이 없다면 관리자들과는 3차원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2차원의 정보를 사용하는 노력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전문가의 4가지 형태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개념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사서의 전문성에 대해 또 하나의 추가되는 새로운 개념이 될 것이다.

## 7. 현대적 기술과 전통적 능력

정보기술의 혁명으로 인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전자도서, 전자출판, 네트워크 출판 등 많은 매체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현대 혹은 초현대 기술에 속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기술과 전통적인 도서관 기술을 조화시키는 인식을 가지고 기록지식을 조직하고 축적하는 것은 사서직의 사회적 기능인 것이다.

문제는 신정보기술의 형태가 아니다. 도서관 사서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에 의한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자에게 보급하고 지원할 때, 정보이용자들의 “비판적 사고력” 및 “정보와 정보매체에 대한 비판적 판단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서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이다.

정보기술환경은 변화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랑가나단의 5법칙에 의한 도서관과 정보봉사의 전반적인 틀은 변화하지 않는다.

나는 지적 이해의 기초는 전통적인 “읽기, 쓰기 및 셈하기”에 있고, 기록지식의 활용은 이러한 것들의 고전적인 기술에 기초를 둔다고 믿고

있다. 나는 도서관과 정보봉사는 디지털 콘텐츠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이용자의 정보능력과 정보기술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 감사의 글 ●

나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기회를 허락하신 한국도서관협회의 이두영 회장님과 조원호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한국 도서관계의 수많은 동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한국, 중국, 일본간의 지역적 협력과 함께 한국 도서관계와 도서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1) 3-29-1, Otsuka, Bunkyo-ku, Tokyo 112-8640, Fax: +81-3-5395-7064:  
E-mail: naito@rd.nacsis.ac.jp: <http://www.nacsis.ac.jp>. Opinions are of author, not necessarily reflect those of organizations cited.
- 2) MORI Koichi et. al. Japanese translation “Five laws of library service” (2nd ed. 1957) (first edition 1931) written by Shiyali Ramamrita Ranganathan. Japan Library Association. 1981. 425 p. ISBN 4-8204-8105-3. (森耕一譯「圖書館學の五法則」日本圖書館協會, 1981)
- 3) Mahnke, Christel. “Librarié’s Information Services and the Internet in Germany.” NACSIS Open Forum, August 27th in Kyoto and 31st 1999 in Tokyo under the framework of project on international sharing of Japanese scholarly information. (grant no.10044018)
- 4)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cholarly Information Dissemination Environment - Report for the fiscal year 1996/97. (grant no. 08308043). 134 p.  
ISBN 4-924600-65-2. (in Japanese).  
<http://websearch.rd.nacsis.ac.jp/rb/viewdoc/> (in Japanese)
- 5) <http://www.jst.go.jp/>
- 6) OYAMA Keizo, KANDO Noriko, SATOH Shin’ichi. “Construction of a Distributed Online Journal Editing System.”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digital Libraries 1999 (ISDL ’99) 8p.  
<http://www.nacsis.ac.jp/olj/index.html> (in Japanese).
- 7) INOUE Hitoshi, NAITO Eisuke and KOSHIZUKA Mika. “MEDIACY: what it is and where to go.” INFO-ETHICS - International congress on Ethical, Legal and Societal Aspects of Digital Information, Monte Carlo, Monaco, 10-12 March 1997.  
<http://www.unesco.org/webworld/infoethics/speech/inoue.htm>
- 8) [Manual for information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Tokyo. July 1991 230 p. ISBN 4-324-02387-5 (in Japanese).
- 9) Moore, Nick. “Creators, collectors, communicators and consolidators: the information professionals of the 21st century.” Report for the Year 1998 Study on International Sharing of Japanese Scholarly Information. NACSIS. March 1999 (grant no. 10044018), pp. 19-28. ISBN 4-924600-72-5. (English & Japanese)